

경제동향

■ 요약

■ 생산 제조업지수/재고지수

■ 소비 대형소매점 판매액

■ 고용 경제활동인구/취업자/실업률·고용률

■ 물가 소비자물가/ 신선식품

장윤선 연구원(서울연구원 시민경제연구실)

■ 부동산 주택매매가격/주택전세가격

■ 금융 가계대출/개인파산/신용보증재단

■ 수출입 수출입액/수출입 품목/국가별 품목

정의영 연구원(서울연구원 시민경제연구실)

| 요·약 | 2월 서울의 경제동향

생 산

- 서울의 2월 제조업생산지수는 86.1로 전년 동월 대비 10.2% 감소하여 생산 부진
- 2월 제조업 출하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6.1% 감소, 재고지수는 4.2% 증가

소 비

- 서울의 2월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2조 1,626억 원으로 전국(6조 5,822억 원)의 32.9% 차지
- 2월 백화점 판매액은 전년 동월 대비 3.5%, 대형마트 판매액은 전년 동월 대비 30.5%로 각각 증가하여 소비 지출 증가 시사

고 용

- 서울의 2월 취업자는 509만 8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만 7천 명(0.5%) 감소
- 서울의 2월 고용률은 59.6%로 전년 동월 대비 0.6%p 감소, 실업률은 4.7%로 전년 동월 대비 0.4%p 감소

물 가

- 2015년 2월 서울시 소비자물가지수는 110.3(2010년=100.0)으로 전년 동월 대비 1.1% 상승하여 저물가 기조 지속
- 전기·수도·가스(-3.1%), 신선식품지수(-1.1%)를 제외한 나머지 부문은 상승

부 동 산

- 서울의 2월 주택매매가격지수는 재건축 이주수요 발생과 전세 부족에 따른 매매 전환 수요 발생의 영향을 받아 전월 대비 0.1% 상승한 100.3 기록
- 서울의 2월 주택전세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0.51% 상승한 111.2를 기록함. 이는 전세 공급 부족, 재건축 이주 수요, 신학기 학군 수요 효과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

금 융

- 서울의 2월 전체 대출금 잔액은 599조 846억 원으로 전월 대비 0.43% 증가
- 서울의 2월 은행 가계대출은 190조 7,963억 원으로 전월 대비 증가
- 서울의 2월 신설법인 수는 1,988개로 전년 동월 대비 10.0% 감소
- 서울의 2월 부도법인 수는 23개로 전년 동월 대비 17.9% 감소
- 서울의 2월 보증금액, 보증지원건수는 전월 대비 각각 48.2%, 36.3% 증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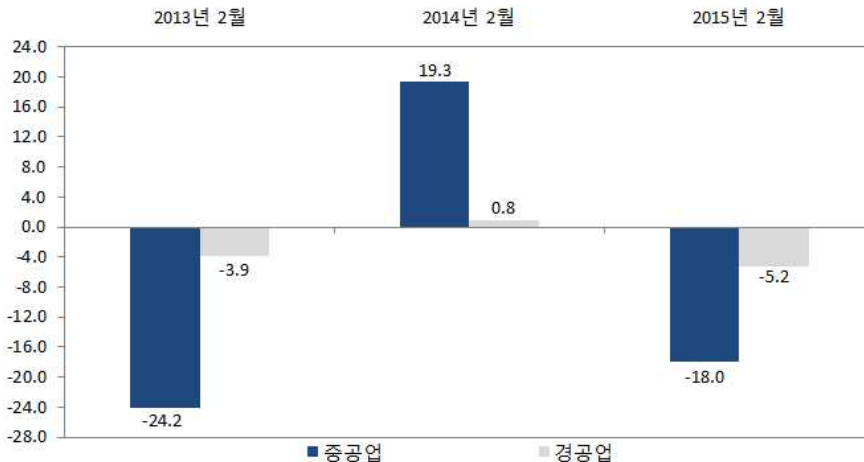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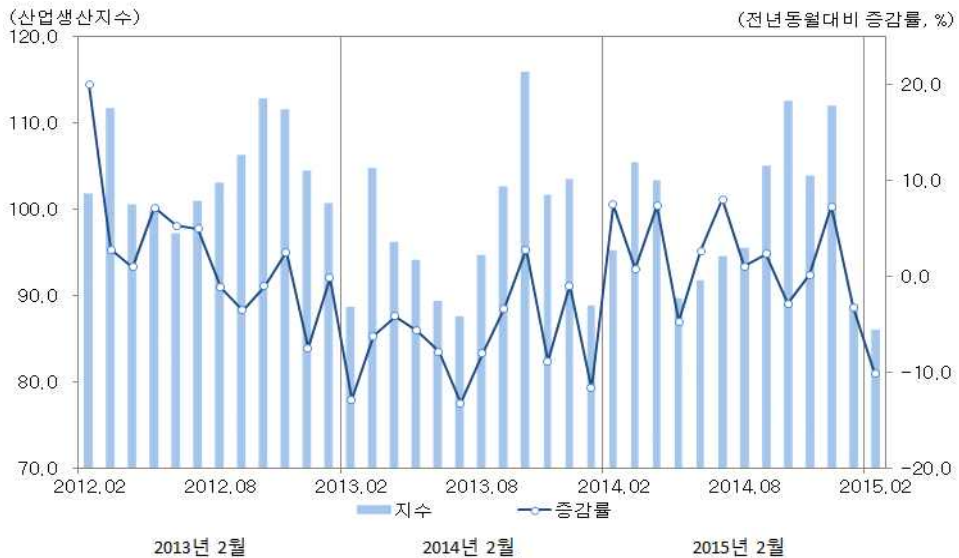
수 출 입

- 서울의 2월 수출은 40.41억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 동월 대비 14.7% 감소, 품목별 1순위는 자동차 부품, 국가별 1순위는 중국이 차지
- 서울의 2월 수입은 111.96억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 동월 대비 5.9% 증가, 품목별 1순위는 원유, 국가별 1순위는 중국이 차지

| 생 · 산 |

■ 서울의 2월 제조업생산지수는 86.1(2010=100)로 전년 동월 대비 10.2% 감소

- 공업구조별로 전년 동월 대비 중공업 부문은 18.0%, 경공업은 5.2%로 모두 감소
- 제조업 부문별로 전년 동월 대비 의료정밀과학(19.7%), 가죽 및 신발(16.2%), 전기장비(12.8%) 등은 증가, 전자부품·컴퓨터·영상음향통신(-32.0%), 기계장비(-26.8%), 의복 및 모피(-7.1%) 등은 감소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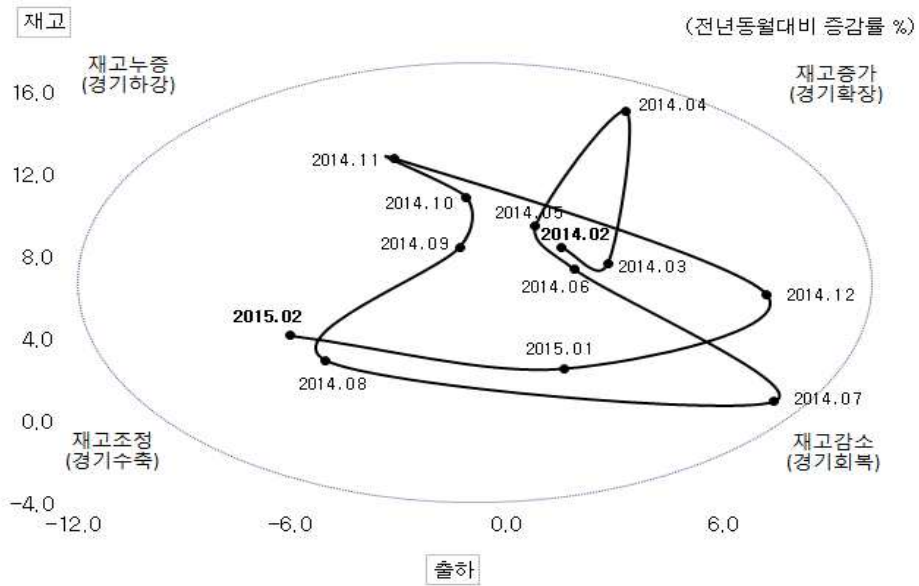
자료: 통계청, 경인지방통계청(2010=100)

〈그림〉 산업생산 추이 및 증감률

| 출하 · 재고 순환 |

■ 서울의 2월 제조업 출하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감소, 재고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증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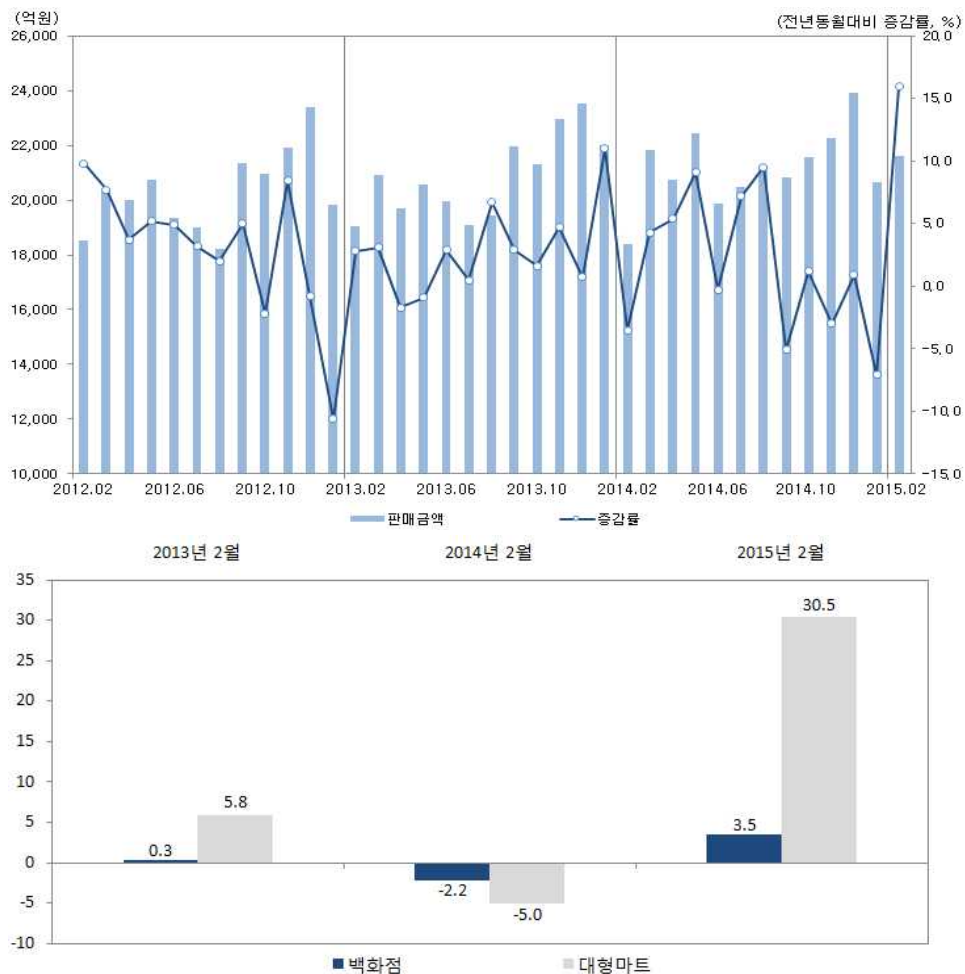
- 서울의 2월 출하지수는 89.5(2010=100.0)로 전년 동월 대비 6.1% 감소
- 서울의 2월 재고지수는 122.8(2010=100.0)로 전년 동월 대비 4.2% 증가



| 소 · 비 |

■ 서울의 2월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전년 동월 대비 16.0% 증가

- 서울의 2월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2조 1,626억 원으로 전국(6조 5,822억 원)의 32.9%
- 2월 백화점 판매액은 1조 375억 원으로 전국(2조 3,285억 원)의 44.6%, 대형마트 판매액은 1조 1,251억 원으로 전국(4조 2,537억 원)의 26.5%를 차지
- 서울의 2월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는 104.6으로 전년 동월 대비 12.4% 증가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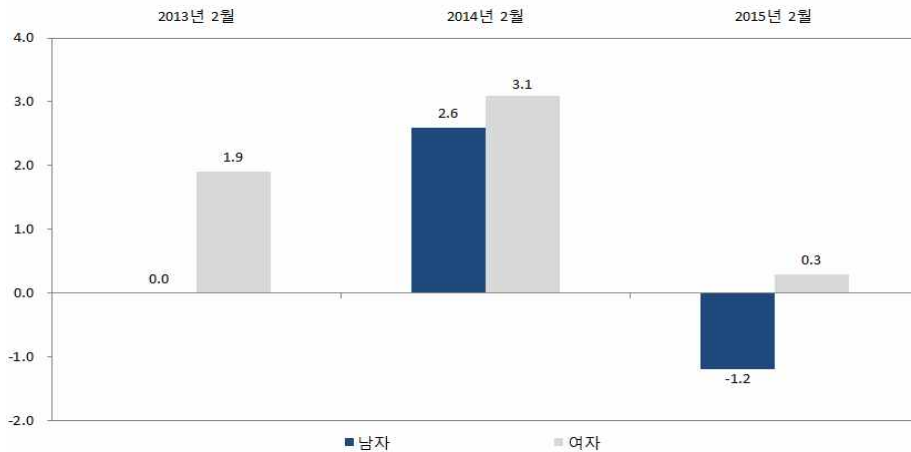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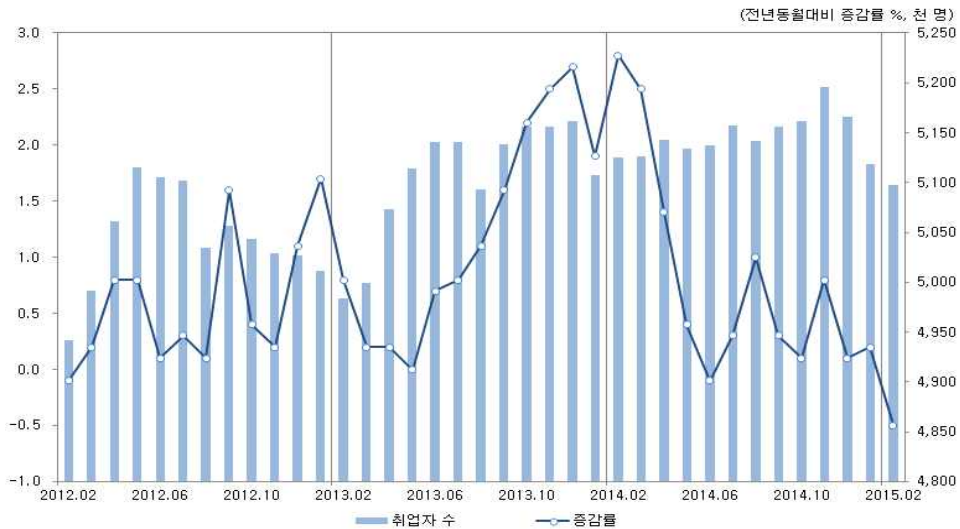
자료: 통계청, 경인지방통계청

〈그림〉 서울의 대형소매점 판매 추이 및 증감률

| 취·업·자 |

■ 서울의 2월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0.5% 감소

- 서울의 2월 취업자는 509만 8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만 7천 명(0.5%) 감소
- 성별로 보면, 남자는 283만 7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만 4천 명(-1.2%) 감소하고, 여자는 226만 2천 명으로 7천 명(0.3%) 증가
- 산업별로 보면, 건설업이 1만 3천 명(4.2%), 도소매·숙박음식업이 3만 2천 명(2.2%) 증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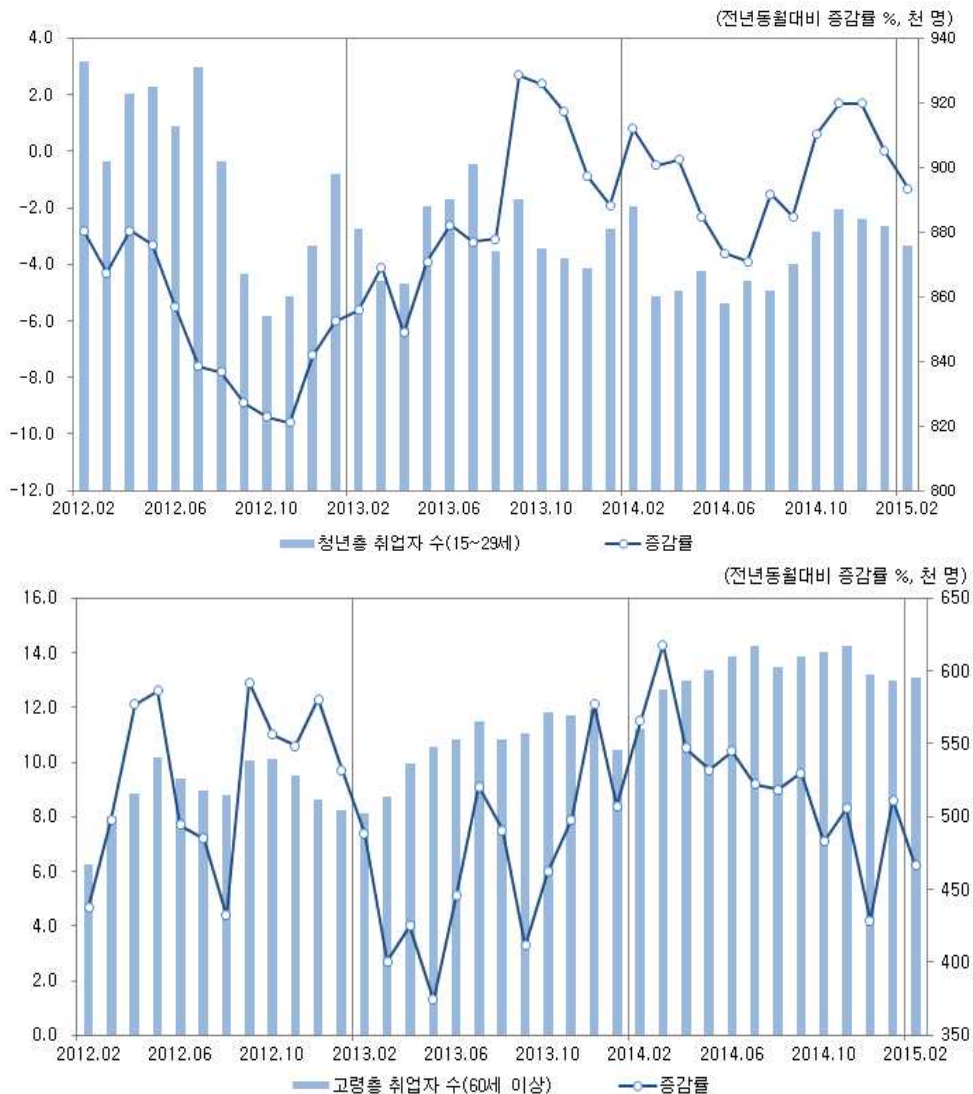


자료: 통계청, 경인지방통계청

〈그림〉 서울의 월별 취업자 추이 및 증감률

■ 서울의 2월 고령층(60세 이상) 취업자는 전년 대비 꾸준한 증가 추세

- 서울의 2월 청년층(15세~29세) 취업자는 87만 6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.3% 감소
- 청년층 취업자 수는 11월부터 88만 7천 명에서 87만 6천 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
- 서울의 2월 고령층(60세 이상) 취업자는 59만 5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6.2% 증가해 지속적 증가세 시현



자료: 통계청, 경인지방통계청

<그림> 서울의 월별 청년층 및 고령층 취업자 추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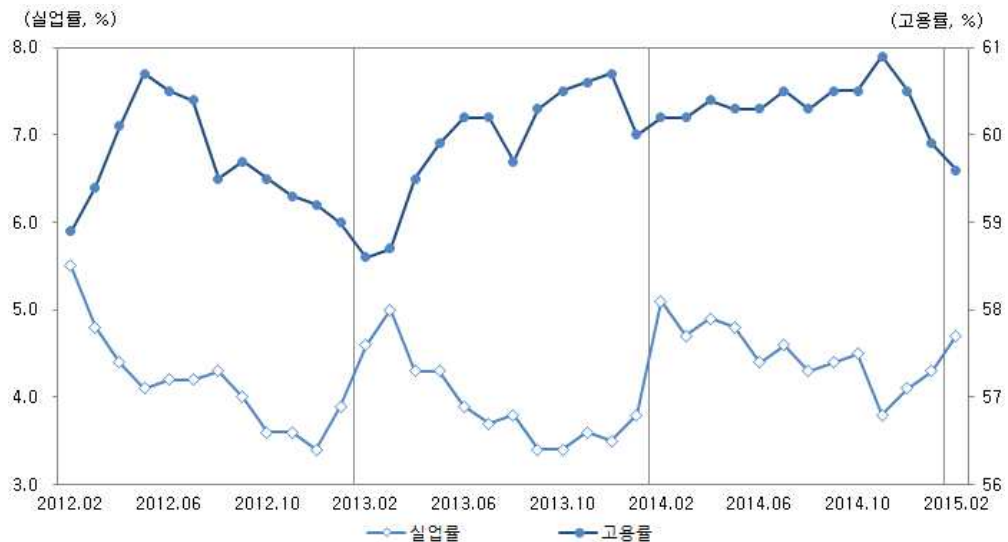
| 고 · 용 · 률 · 및 · 실 · 업 · 률 |

■ 서울의 2월 고용률은 전년 동월 대비 다소 감소했으나, 전국 대비 높은 수준

- 서울의 2월 고용률은 59.6%로 전년 동월 대비 0.6%p 감소
- 성별로 보면, 남자는 69.3%로 전년 동월 대비 1.1%p, 여자는 50.7%로 0.2%p 각각 감소
- 2015년 2월 서울시 고용률은 전국(58.8%)에 비하여 0.8%p 높은 수준

■ 서울의 2월 실업률은 전년 동월 대비 상승했으며, 전국 대비 높은 수준

- 서울의 2월 실업자는 25만 3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만 3천 명(8.3%) 감소
- 실업률은 4.7%로 전년 동월 대비 0.4%p 감소
- 성별로 보면, 남자는 4.5%로 전년 동월 대비 0.6%p, 여자는 5.0%로 전년 동월 대비 0.1%p 감소
- 2015년 2월 서울시 실업률은 전국(4.6%)에 비하여 0.1%p 높은 수준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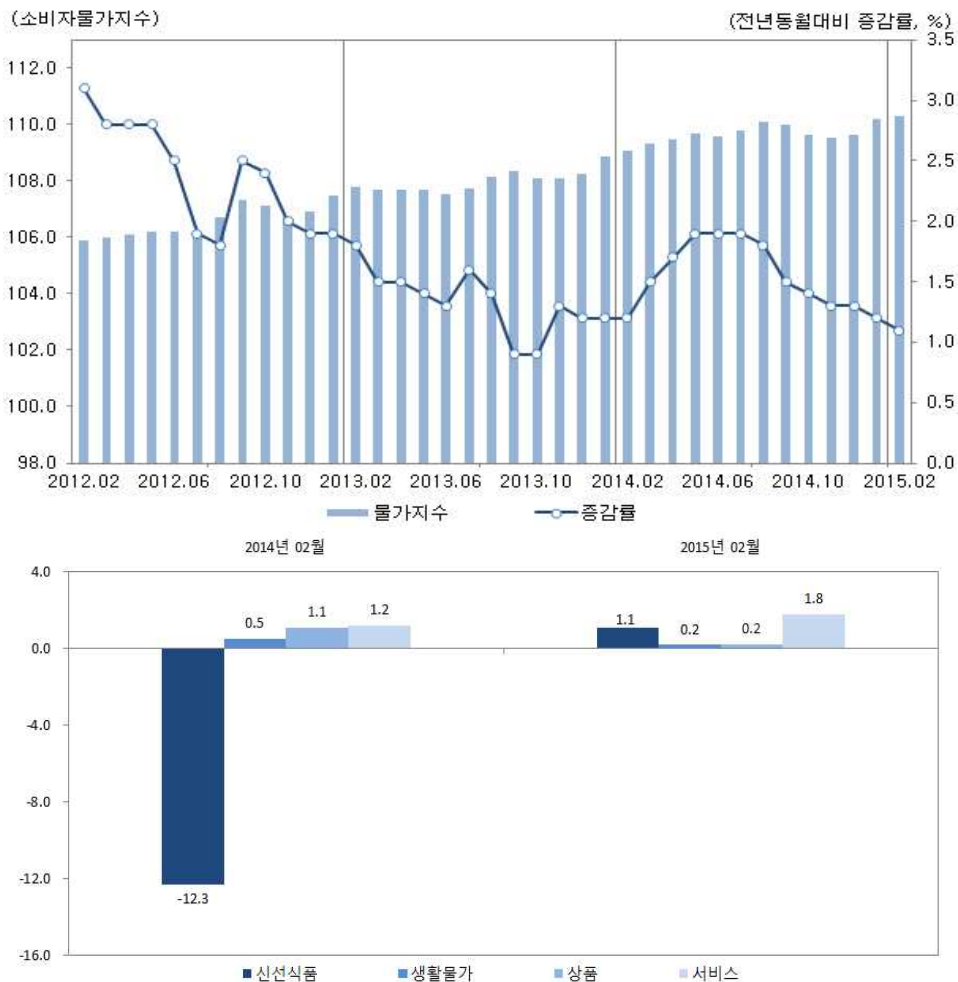
자료: 통계청, 경인지방통계청

<그림> 서울 실업률, 고용률 추이

| 물·가 |

■ 서울의 2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1.1% 상승

- 2015년 2월 서울시 소비자물가지수는 110.3(2010년=100.0)으로 전년 동월 대비 1.1% 상승
- 전년 동월 대비 주요 등락 부문을 보면, 전기·수도·가스(-3.1%), 신선식품지수(-1.1%)를 제외한 나머지 부문은 상승



자료: 통계청, 경인지방통계청(2010=100)

〈그림〉 서울의 소비자물가 추이 및 동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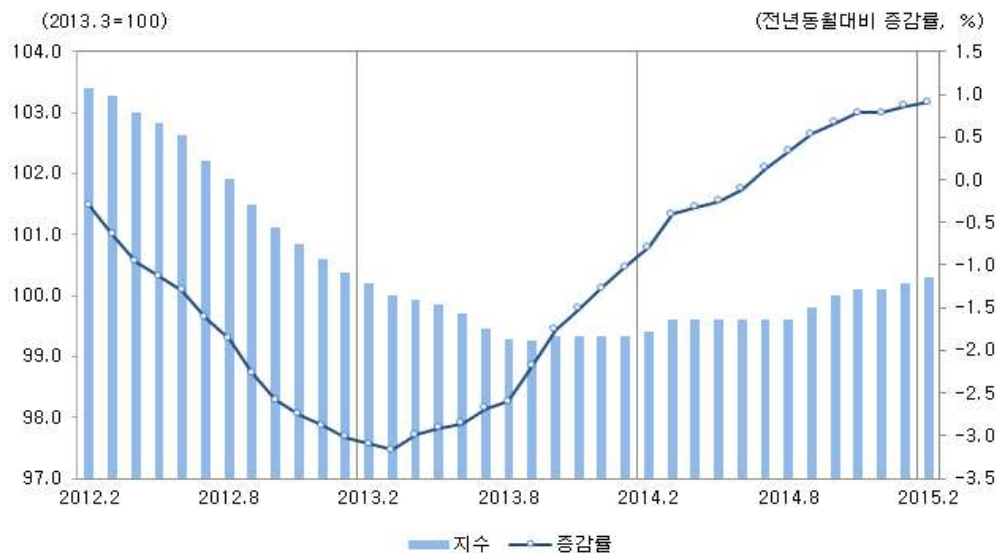
| 주 · 택 · 매 · 매 · 가 · 격 |

■ 서울의 2월 주택매매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상승

- 서울의 2월 주택매매가격지수는 100.3으로 전월 대비 0.1% 상승하였으며, 전월 대비 0.14% 상승한 강남지역은 재건축 이주 수요 발생이, 전월 대비 0.17% 상승한 강북지역은 전세 부족에 따른 매매전환 수요 발생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됨
- 주요 상승지역: 성동구(0.48%), 종로구(0.39%), 강동구(0.42%), 중구(0.24%)

■ 전국의 2월 주택매매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상승

- 전국의 2월 주택매매가격지수는 103.0으로 전월 대비 0.23% 상승함. 이는 전세가격 상승으로 인한 매매전환 수요 발생과 신학기를 맞은 학군 수요 증가 등이 결합된 결과로 보임. 5개 광역시, 수도권, 기타지방 모두 전월 대비 각각 0.37%, 0.21%, 0.10% 상승



자료 : 국민은행연구소

〈그림〉 서울 주택 매매가격 종합지수와 증감률 추이

■ 서울의 2월 아파트 평당 매매가격, 매매거래건수는 전월 대비 상승

- 서울의 아파트 평당 평균 매매가격(1,669만 원), 매매거래건수(8,564건)는 전월 대비 각각 0.35%, 25% 상승

| 주 · 택 · 전 · 세 · 가 · 격 |

■ 서울의 2월 주택전세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상승

- 서울의 2월 주택전세가격지수는 111.2로 전월 대비 0.51% 상승함. 전체적으로 전세매물이 부족한 가운데, 역세권을 중심으로 수요가 크게 증가한 성동구(1.01%)와 신학기 학군 수요와 재건축 이주 수요가 맞물리며 전세 수요가 증가한 서초구(0.99%)의 상승이 특기할 만함. 강남(0.54%), 강북지역(0.47%) 모두 전월 대비 상승
- 주요 상승지역: 성동구(1.01%), 동대문구(0.78%), 서초구(0.99%), 강동구(0.89%)

■ 전국의 2월 주택전세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상승

- 전국의 2월 주택전세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0.34% 상승한 109.4이며 이는 신학기를 맞은 학군 수요 증가와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전세 가격 상승이 결합한 결과임. 5개 광역시, 수도권, 기타지방 모두 전월 대비 각각 0.31%, 0.44%, 0.10% 상승



자료 : 국민은행연구소

〈그림〉 서울 주택 전세가격 종합지수와 증감률 추이

■ 서울의 2월 아파트 평당 전세가격, 전세거래건수 모두 전월 대비 증가

- 평당 전세가격(1,076만 원), 전세거래건수(13,263건)는 전월 대비 각각 1.1%, 28.4% 증가

| 가 · 계 · 대 · 출 |

■ 2월 기준 서울의 전체 대출금 잔액은 전월 대비 증가

- 전체 대출금 잔액(599조 846억 원)은 전월 대비 0.43% 증가
- 그 중 예금은행(500조 7,326억 원)과 비예금은행(98조 3,520억 원)은 전년 동월 대비 각각 6.4% 증가, 5.6% 감소

■ 2월 기준 전국의 전체 대출금 잔액은 전월 대비 증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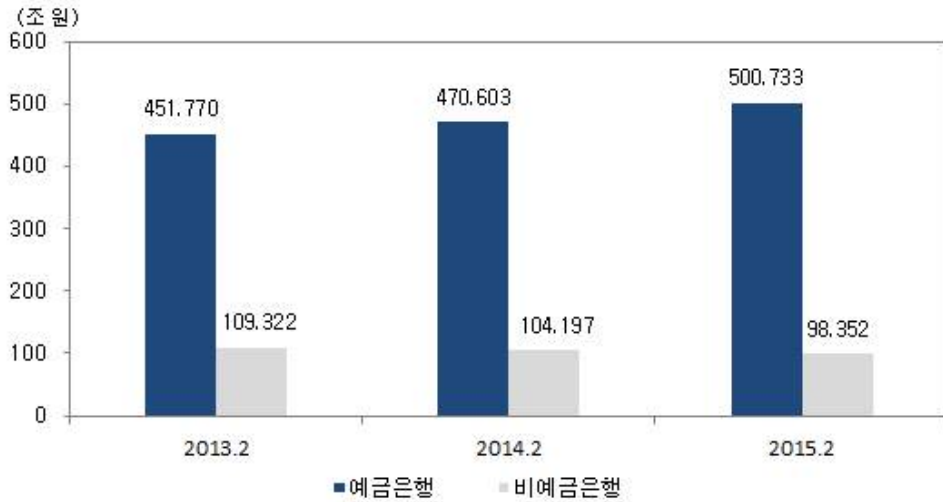
- 전체 대출금 잔액(1,648조 2,738억 원)은 전월 대비 0.58% 증가
- 그 중 예금은행 잔액은 1,267조 5,643억 원이며 비예금은행 잔액은 380조 7,095억 원



주 : 말잔 금액, 대출금은 예금은행과 비은행금융기관(한국수출입은행, 종합금융회사, 신탁회사, 상호저축은행, 상호금융, 새마을금고, 신용협동조합)의 총합

자료 : 한국은행

〈그림〉 서울시 금융기관 대출금 잔액과 증감률 추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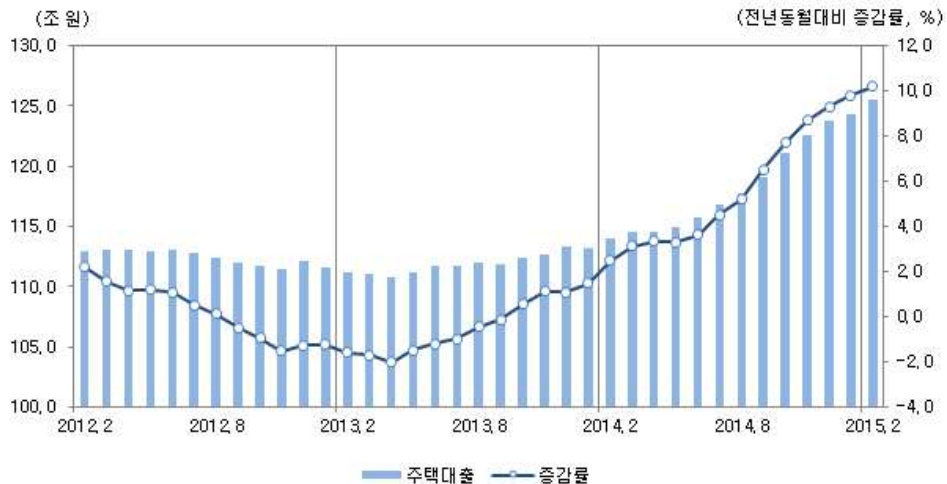


자료 : 한국은행

〈그림〉 서울시 예금은행과 비예금은행의 대출금 잔액

■ 2월 중 서울의 은행 가계대출은 전월 대비 증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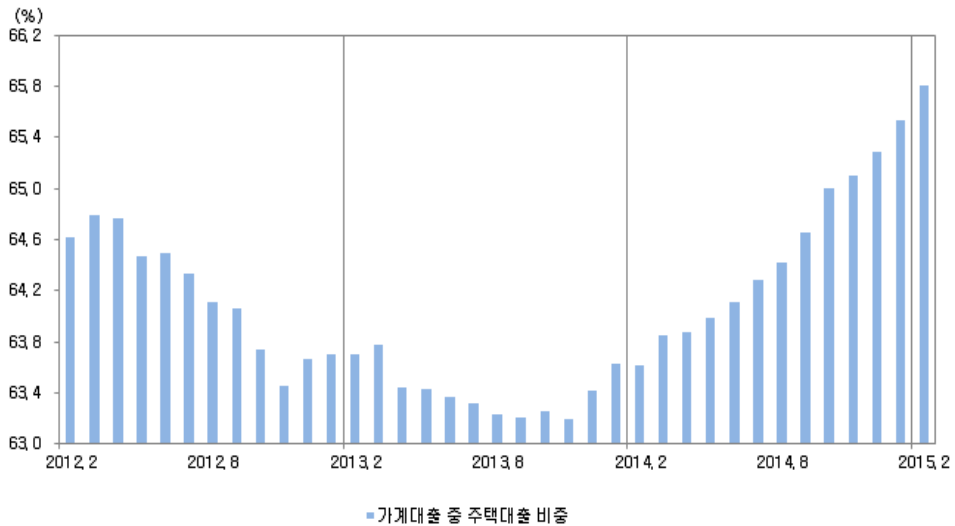
- 은행 가계대출(190조 7,963억 원)은 전월(189조 6,941억 원) 대비 증가
- 그 중 주택대출(125조 5,470억 원)은 전월 대비 1.0%, 전년 동월 대비 10.2% 증가하였고, 가계대출 중 주택대출 비중은 65.8%



주 : 말잔 금액, 주택대출은 주택담보대출과 주택관련 집단대출 중 주택담보 이외의 대출의 총합

자료 : 한국은행

〈그림〉 서울의 은행 주택대출 추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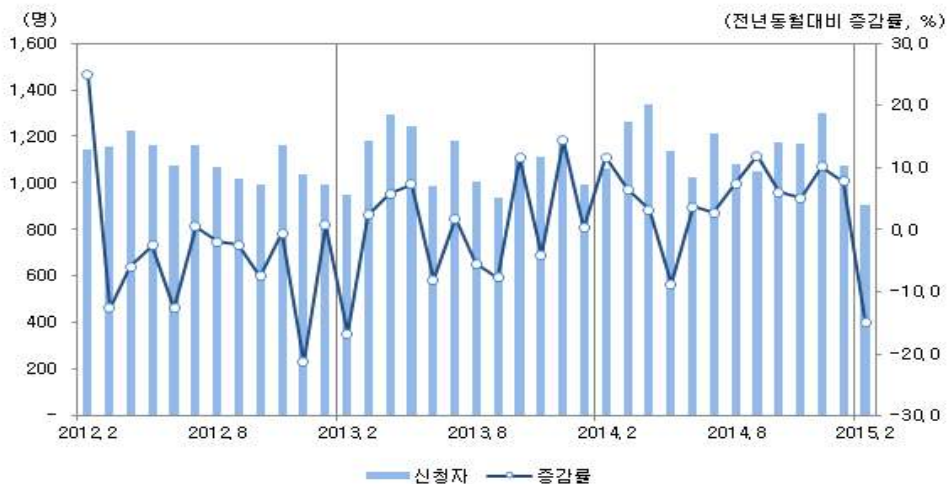


자료 : 한국은행

〈그림〉 서울의 은행 가계대출 중 주택대출의 비중 추이

■ 2월 중 개인파산 신청자는 전월 대비 감소

- 개인파산 신청자(904명)는 전월(1,072명) 대비 15.7% 감소
- 개인파산 선고 전 기각 처리 건수(13건)는 전월 대비 감소하였으며, 개인파산 선고 전 기각률은 1.3%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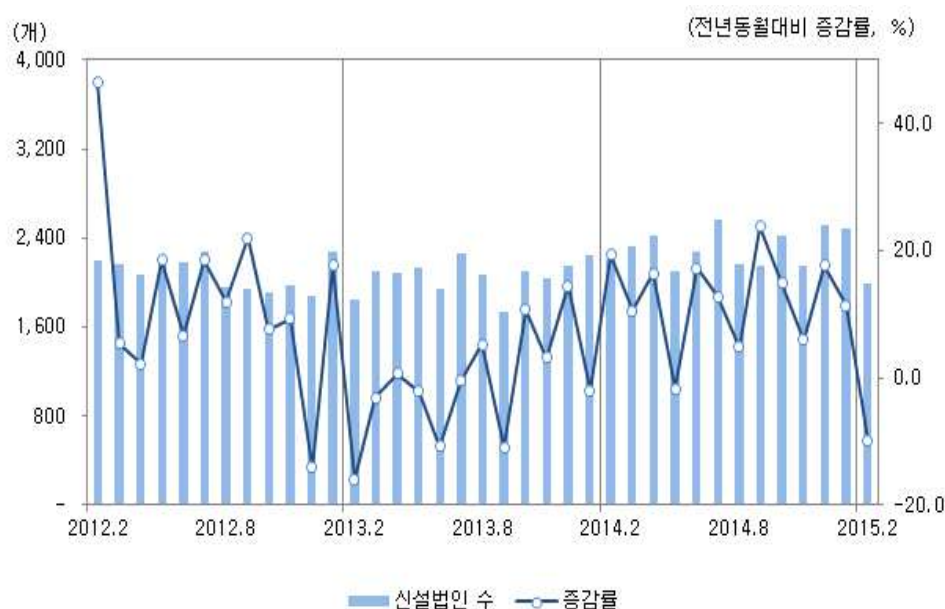
자료 : 대법원

〈그림〉 서울시 개인파산 신청자 추이

| 신 · 설 · 및 · 부 · 도 · 법 · 인 |

■ 서울의 2월 신설법인 수는 전월 대비 감소

- 서울의 2월 신설법인 수는 1,988개로 전월 대비 20.2% 감소, 전년 동월 대비 10.0% 감소



자료 : 중소기업청

〈그림〉 서울시 신설법인 추이

■ 서울의 2월 부도법인 수는 전월 대비 증가

- 2월 부도법인 수는 23개로 전월(21개) 대비 증가, 전년 동월 대비 17.9% 감소
- 업종별 부도업체 수는 제조업 7개, 서비스업 9개, 건설업 6개씩으로 전월 대비 각각 0개, 3개 감소, 4개 증가하였으며, 전년 동월 대비 36.4%, 18.2% 감소, 20.0% 증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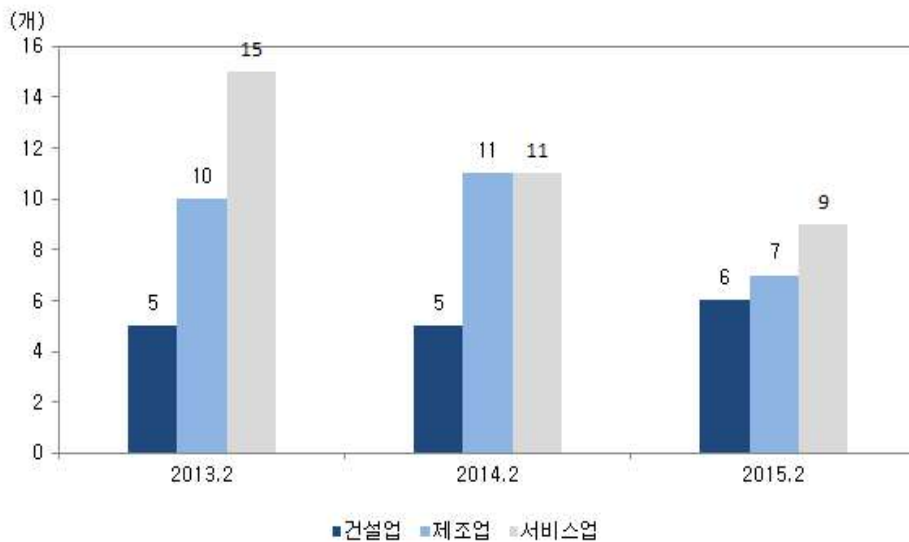
■ 2월 중 서울의 어음부도율은 전월 대비 하락, 신설 / 부도법인 비율은 전월 대비 감소

- 서울의 어음부도율은 0%로 전월(0.01%) 대비 하락하였으며, 서울의 신설법인 / 부도법인 비율은 86.4로 전월(118.7) 대비 큰 폭으로 하락



자료 : 한국은행

<그림> 서울시 부도법인 추이



자료 : 한국은행

<그림> 서울시 산업별 부도법인 현황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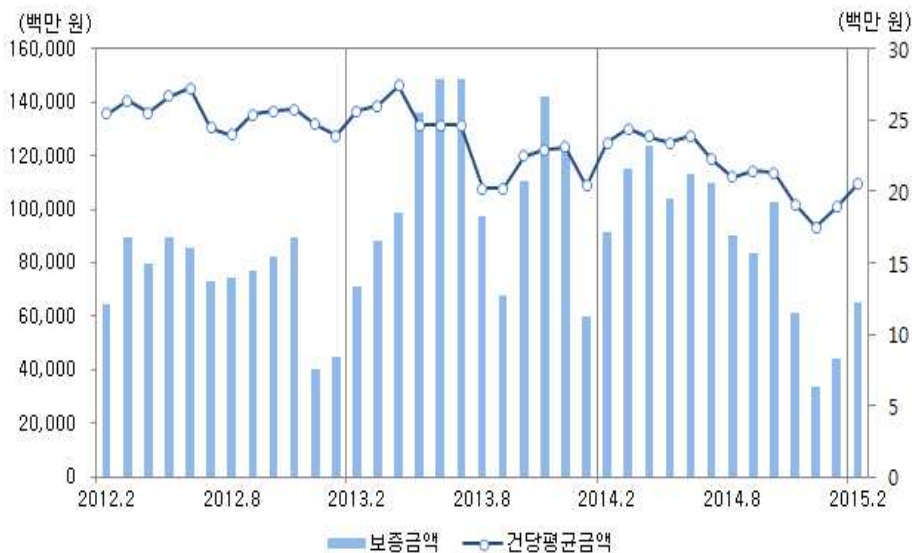
자료 : 중소기업청, 한국은행

〈그림〉 서울시 어음부도율과 신설 / 부도법인 배율 동향

| 신·용·보·증 |

■ 서울의 2월 보증금액, 보증지원건수는 전월 대비 증가

- 서울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서울시 신용보증공급은 월중 65,325백만 원 / 3,185건
- 보증금액과 보증지원건수는 전월 대비 각각 48.2%, 36.3% 증가, 건당 평균 지원 금액(20.5백만 원)은 전월 대비 8.5% 증가
- 전년 동월 대비 보증금액과 보증지원건수는 각각 28.6%, 18.5% 감소, 건당 평균 지원 금액은 12.4% 감소



자료 : 서울신용보증재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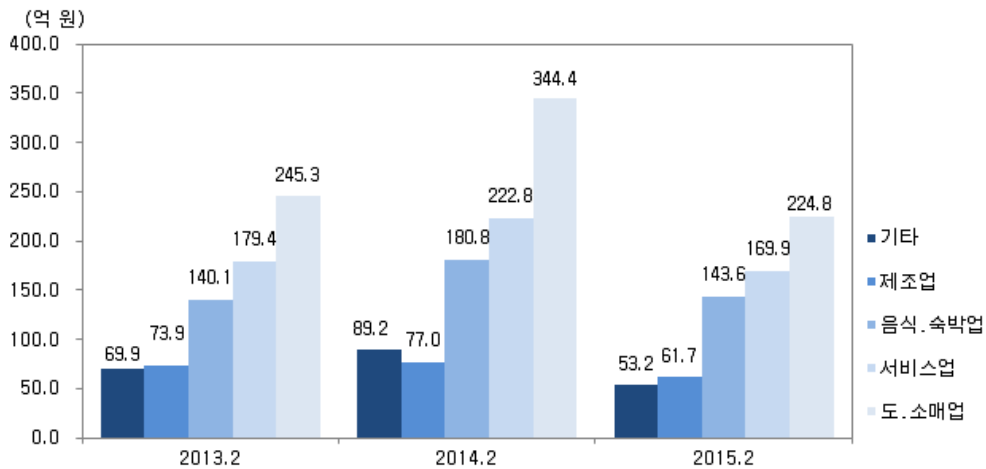
〈그림〉 서울의 보증금액과 건당 평균 지원 금액 추이

■ 보증금액은 업종 모두에서 전월 대비 상승하였으나 전년 동월 수준은 여전히 하회

- 도소매업에 대한 보증금액은 224.8백만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34.7% 감소하였으며 공급금액기준 보증지원비중은 전월 대비 2.2%p 상승한 34.4%
- 제조업에 대한 보증금액은 61.7백만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9.8% 감소하였으며 공급금액기준 보증지원비중은 9.4%로 전월 대비 2.3%p 상승
- 서비스업에 대한 보증금액은 전년 동월 대비 23.8% 감소한 169.9백만 원
- 도소매업 보증지원건수는 1,058건이며 제조업 보증지원건수는 210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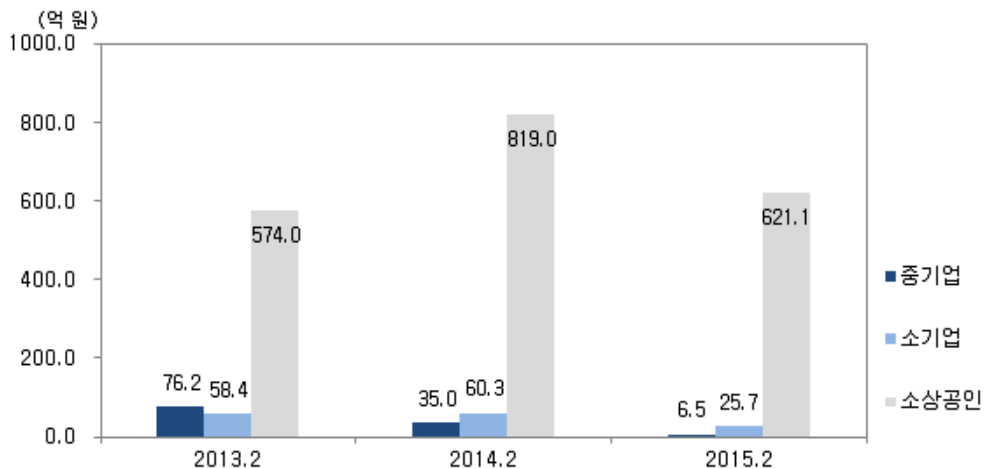
■ 소기업, 소상공인 보증 자원은 전월 대비 증가, 전 기업규모에서 보증 자원은 전년 동월 대비 감소

-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금액은 전년 동월 대비 24.2% 감소한 621백만 원으로, 공급금액기준 전체보증금액의 95.1%를 차지하고, 보증지원건수는 3,119건
- 소기업에 대한 보증금액은 전년 동월 대비 57.4% 감소한 25.7백만 원으로 공급금액기준 전체보증금액의 3.9%를 차지하고, 보증지원건수는 60건
- 중기업에 대한 보증금액은 전년 동월 대비 81.4% 감소한 6.5백만 원으로 공급금액기준 전체보증금액의 1%를 차지하고, 보증지원건수는 6건



자료 : 서울신용보증재단

〈그림〉 업종별 공급금액 기준



자료 : 서울신용보증재단

〈그림〉 기업규모별 공급금액 기준

| 수 · 출 · 입 |

■ 서울의 2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감소, 수입은 전년 동월 대비 증가

- 서울의 수출은 40.41억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 동월 대비 14.7% 감소하였고, 수입은 111.96억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 동월 대비 5.9% 증가
- 전국의 수출은 414.83억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 동월 대비 3.4% 감소하였고, 수입은 338.09억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 동월 대비 19.6% 감소

■ 서울의 2월 수출 1순위는 자동차부품, 수입 1순위는 원유

- 서울의 품목별 수출은 자동차부품이 425백만 달러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합성수지, 반도체, 고무제품, 편직물 순
- 서울의 품목별 수입은 원유가 1,150백만 달러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반도체, 자동차, 석유제품, 무선통신기기 순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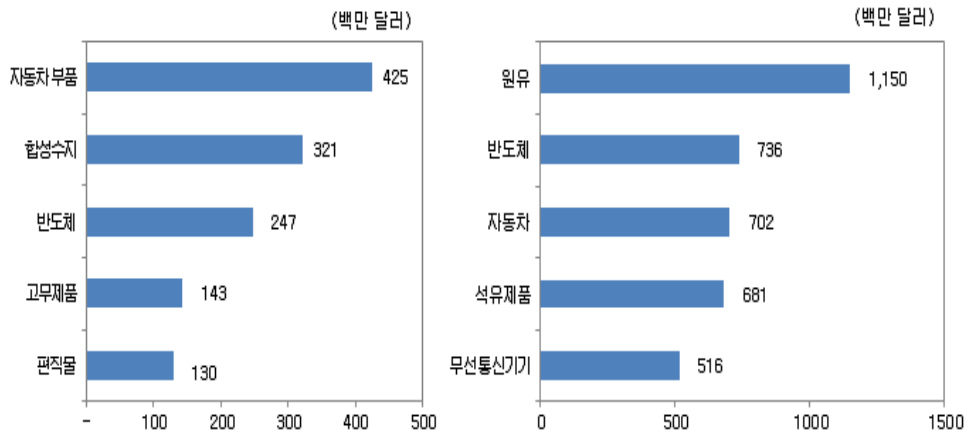
자료 : 무역협회

〈그림〉 서울시 수출액과 증감률 추이



자료 : 무역협회

〈그림〉 서울시 수입액과 증감률 추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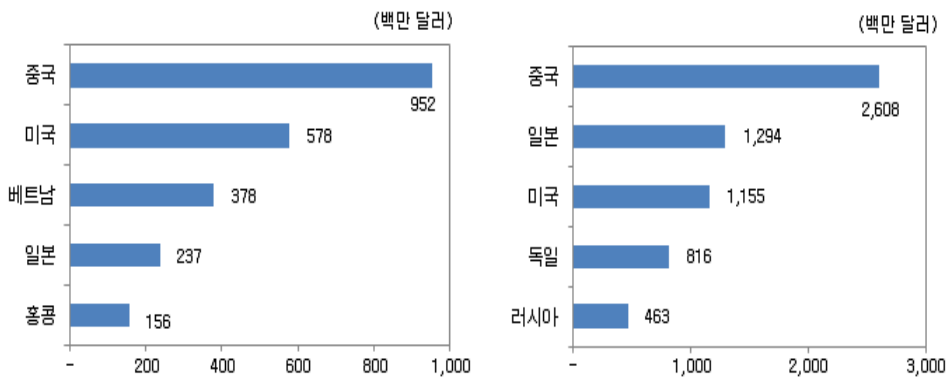
자료 : 무역협회

〈그림〉 2월 서울시 품목별 수출액

〈그림〉 2월 서울시 품목별 수입액

■ 서울의 2월 수출수입 1순위 상대국은 중국

- 서울의 국가별 수출은 중국이 전년 동월 대비 33.7% 감소한 952백만 달러를 기록하여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, 다음으로 미국, 베트남, 일본, 홍콩 순
- 대 미국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8.4% 증가하여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으며 베트남으로의 수출도 전년 동월 대비 17.5% 증가
- 서울의 국가별 수입은 중국이 전년 동월 대비 23% 증가한 2,608백만 달러를 기록하여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, 다음으로 일본, 미국, 독일, 러시아 순
- 대 러시아 수입은 전년 동월 대비 3배 가까이 상승한 463백만 달러 기록



자료 : 무역협회

〈그림〉 2월 서울시 국가별 수출액

〈그림〉 2월 서울시 국가별 수입액

| 자 · 료 · 출 · 처 |

경인지방통계청, 「2015년 2월 서울시 산업활동동향」
 경인지방통계청, 「2015년 2월 서울시 고용동향」
 경인지방통계청, 「2015년 2월 서울시 소비자물가동향」
 경제통계시스템, 「<http://ecos.bok.or.kr>」
 농수산물유통공사, 「<http://www.garak.co.kr/youtong>」
 관세청, 「2015년 2월 수출입 및 무역수지동향」
 국민은행연구소, 「2015년 2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」
 부동산114, 「2015년 2월 서울시 아파트 평당매매가격」
 중소기업청, 「2015년 2월 중 신설법인 동향」
 중소기업청, 중소기업조사통계시스템, 「<http://stat2.smba.go.kr>」
 통계청, 「2015년 2월 산업활동동향」
 통계청, 「2015년 2월 고용동향」
 통계청, 「2015년 2월 소비자물가동향」
 통계청, 통계정보시스템, 「<http://kosis.kr>」
 한국무역협회, 무역정보네트워크, 「<http://stat.kita.net>」
 한국은행, 「2015년 2월 중 어음부도율 동향」
 한국은행, 「2015년 2월 중 금융시장 동향」
 한국은행, 경제통계시스템, 「<http://ecos.bok.or.kr>」
 서울특별시, 서울부동산정보광장, 「<http://land.seoul.go.kr/land>」